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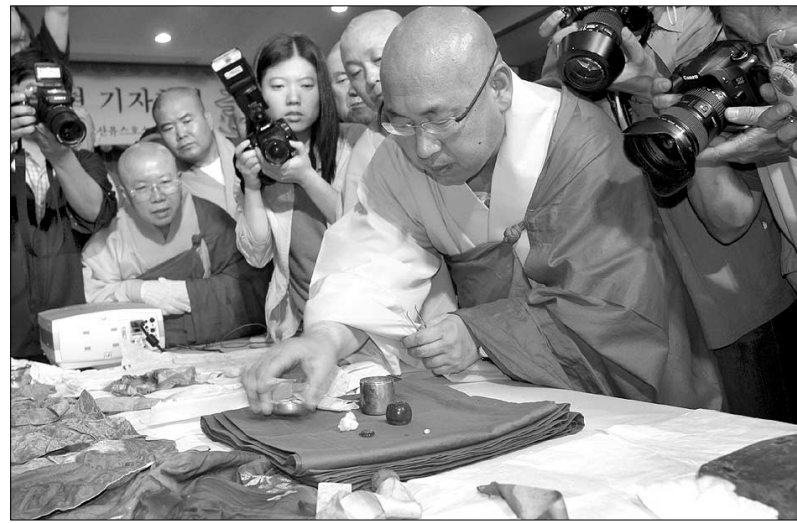
# 낙산사서 부처님 진신사리 발견

지난해 4월 천년 고찰이 화마로 전소돼 전국민이 안타까워했던 양양 낙산사에서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낙산사주지 정념 스님은 5월 18일 낙산유스호스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 해수관을 공중사리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

주 양호하며 특히 함께 발견된 222cm의 불탑본안문에서 조성연대와 경위 등을 알 수 있어 사리장엄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삼국유사>에 "자장승사가 선덕여왕 12년(643년)에 부처님 진신 사리 1과를 갖고 낙산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고 공중사리탑이 조성될 당시에는 부처님 진신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이 공중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 장엄과 불사리를 공개하고 있다.

## 화재 피해 공중사리탑 해체보수 과정에서 진신사리 1과·사리호 등 9건 19점 공개 함께 발견된 복장물 문화재적 가치 높아

된 부처님 진신사리 1과와 사리호, 불탑 본안문, 비단보자기 등 9건 19점을 공개했다.

단국대 정영호 박물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견된 유물들은 언제부터인지 약간 기울어져 있던 공중사리탑이 화재로 피해를 입어 보수하던 중 4월 28일 오전 편구형의 탑신 상면에서 직경 23cm, 길이 17cm의 사리공에서 발견됐다"며 "부처님 진신사리는 금, 은, 동제함 속의 갈색 사리호에 쌓여져 있었고 보관 상태가 아

사리 이외에는 '사리'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견된 사리는 부처님 진신 사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관공중사리비명에 의하면 이번에 공개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1683년 흥련암을 보수하면서 공중에서 떨어졌고 9년 후인 1692년 공중사리탑에 보관됐다. 실측 결과 부처님 진신사리는 폭 0.8cm, 높이 0.6cm 크기며 유백색으로 광채를 내고 있다.

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발견된 금, 은, 동제함을 쓴 비단 보자기 8점에는 화문, 봉황, 연화문 등이 수놓여져 있고 형태나 색깔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복식 전문가인 박성신 단국대 교수는 "복식 유물 가운데 비단 등 복식물은 분묘 등 출토 유물과 달리 전시에 걸쳐 색깔, 문양 등이 남아있어 복식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된다"며 "특히 당시 봉황문양을 사

유한 것으로 보아 왕실 후원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격자 모양의 짙 금직 유물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형태라 학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중창불사가 한창인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며 낙산사 중창불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리 장엄대를 설치해 진건 법회를 가진 후 사리는 다시 탑에 봉안할 예정이며 사리장엄은 후대를 위해 문화재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0>

### 도의 과학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해 한 방송사는 선을 주제로 한 시리즈물을 내보내고 있다. 벽안의 청년이 선사들에게서 배우는 맑고도 깊은 가르침, 한국의 산사에서 느끼는 독특한 그윽함 등이 잘 표현되고 있다. 청년의 진지한 구도 정신은 우리에게 오해려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온다.

청년이 '도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스님은 '차라도 한잔 하십시오'라고 대답한다. 이 차를 마시고 느낄 줄 아는 것 자체가 도라는 것이다. 나라는 본성이 곧 도이지 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에 대한 책을 한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에게는 이러한 대답이 놀란 만한 대답은 아니다. 쉬운 만큼이나 어려운 대답이다. 나라고 인식하는 수많은 오류에서 벗어나 있는

이란 그저 사람이 만들어 낸 허구이며, 변하기 짝이 없는 것이야말로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생사멸반상공화(生死涅槃相共和, 변화하는 나고 죽는 모습이 곧 깨달은 것과 같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의상대사 법성개 한 구절)'라고 하지 않았던가.

과학자는 변하는 모습으로부터, 원래 존재의 모습을 가능한다. 분자를 예로 들면, 분자에 에너지를 주면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빛을 내보내는데, 과학자는 이 빛(반응)을 측정함으로써 원래의 전자 에너지를 유추한다. 양자역학은 결코 원래 에너지 자체를 측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저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원래 모습을 그려낼

## 논리적으로 도기술하는 일 결코 쉽지 않아 부처님 가르침 알리는 기술의 빈곤 아쉬워

사람만이 느끼는 차 자체의 맛을 그렇게 표현했으리라. 말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동양의 전통 때문에, 말을 너무 있어 먹은 느낌마저 드는 답이다.

과학은 논리라는 명제에서 출발하는 체계이므로, 도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아마 허가 잘리거나, 불꽃에 나방이 뛰어드는 격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차피 길을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므로 배에 대해서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보기로 하자.

도란 원래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가 아닐까. 이처럼 그림자를 걸어내면 드러나는 원래의 모습이 이데아라면, 도는 그림자를 걸어낸 양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르쳐준다. 자연이야말로 도의 모습일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이지 인간 사회와 반대되는 개념의 nature가 자연이 아니다. 죄를 선의 반하므로 배에 대해서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보기로 하자.

도란 어쩌면 플라톤의 이데아와 반대되는 개념인지도 모른다. 플라톤은 변하기 쉬운 속세, 자연의 현상들이 아닌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인 개념을 이데아라고 설정했다. 서양의 철학자는 이러한 이데아를 찾고 속세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를 동양의 성현들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데

아란 원래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가 아닐까. 이처럼 그림자를 걸어내면 드러나는 원래의 모습이 이데아라면, 도는 그림자를 걸어낸 양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르쳐준다. 자연이야말로 도의 모습일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이지 인간 사회와 반대되는 개념의 nature가 자연이 아니다. 죄를 선의 반하므로 배에 대해서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보기로 하자.

##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 "둘 아니네"

붓다와 예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무엇을 남겼나. 불교·개신교계 학자들이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부처님과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다각적으로 조명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공동주최로 제1회 불자-기독교 교수 공동학술대회가 5월 19일 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코홀에서 열렸다.

다-대안적 종교문화를 창출한 인류의 두 스승' 등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논문들은 신격화된 부처와 예수가 아닌 불경과 성경 안에 기술된 그들의 가르침과 이 시대 종교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의 고통과 무지를 스스로 철저히 맞보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랑(자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예수의 대승적 용기와 믿음은 불교의 그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신대 김경재 교수는 '불교의 유기체적 실재관 비평' '기독교의 선택적 구원론을 보완하는 자비정신' '이원론적 사고관을 극복하는 대승기신론' '여래장 사상과 신학적 인간관' '기독교의 우상타파와 선(禪)' '정혜정수와 선교병행' 등의 소주제를 통해 불교의 연기적 사고와 개신교의 보편구원설을 대입시켜 논리를 펼쳤다.

### 불자-기독교 교수 공동학술대회 열려 종교 이데올로기 비판적 시각서 조명

우회종 교수는 논문의 핵심소재를 '예수님의 행적과 설교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불교적 해석으로 논문발표를 이끌어 갔다.

우 교수는 또 "원죄나 무명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와 결코 둘이 아니기에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자리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관계로부터 단절된 인간

의 고통과 무지를 스스로 철저히 맞보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랑(자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예수의 대승적 용기와 믿음은 불교의 그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신대 김경재 교수는 '불교의 유기체적 실재관 비평' '기독교의 선택적 구원론을 보완하는 자비정신' '이원론적 사고관을 극복하는 대승기신론' '여래장 사상과 신학적 인간관' '기독교의 우상타파와 선(禪)' '정혜정수와 선교병행' 등의 소주제를 통해 불교의 연기적 사고와 개신교의 보편구원설을 대입시켜 논리를 펼쳤다.

### 동악미술사학회, 월례발표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윤범모)는 5월 20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제34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발표회에서는 김은정씨(동국대 박사과정)의 '조선 후기 전남지방 상류 주택 안채와 사찰 요사의 평면 및 공간 비교 연구' 성신여대 조정용 강사의 '근대 채색화 연구' 등 불교건축과 미술에 관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은정씨는 논문을 통해 "요사와 안채의 유사성에는 마루나 대청을 통해 각 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공간 구성의 합리성과 수장 공간 확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림: 문병성

### ( 불자정보 )

- 규격: 5×5cm=50,000원
- 계좌: 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22-25-0005-38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02) 2004-8213~6 / (02) 732-1522 (直)
- 전 송: (02) 737-0696
- e-mail: jabi1522@empal.com

<h4>사찰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남 창원군 유어면 부곡리</li> <li>• 대지: 198평</li> <li>• 한옥사간(옛집 그대로) 건물 3동, 우측동(방1, 창고 좌측동(방1))</li> <li>• 가액: 4천 500만원 (꼭 필요한 사람만 연락 요망)</li> <li>011-9517-4130</li> </ul>	<h4>사찰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충남 서산 서산 IC 5분거리 시내에서 5분거리</li> <li>• 대지: 980평</li> <li>• 건물: 대웅전, 명부전, 요사2채</li> <li>• 가액: 8억 5천만원</li> <li>016-342-7777</li> </ul>
<h4>토굴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충북 단양 접성</li> <li>• 대지: 100평</li> <li>• 건평: 약 20평, 작은창고1, 조경, 도로접, 전기수도</li> <li>• 해발 500m 금수산 옆 마항산 중턱, 양이 확드림 조용한 곳</li> <li>• 가액: 합 4,200만원</li> <li>010-6460-1316</li> </ul>	<h4>사찰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기도 이천시 서울 50분거리 시내에서 버스 15분거리 자가용으로 10분거리</li> <li>• 대지: 실평수 200평</li> <li>• 법당 25평, 요사채 38평</li> <li>• 법당, 전기 일체 양도 청원수 다스</li> <li>• 가액: 2억 2천, 전세 4천만원</li> <li>• 설마당까지 주차가능</li> <li>018-309-1760 031)632-2138</li> </ul>

## 명당(부귀복덕)적지 사찰안내

- 위치: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지하철 1호선 7호선 7-10분 거리
- 대지 184평, 건평 184평
- 2Km 이내 중산층(아) 5만세대 중, 고교 18 · 초중 13곳
- 포교당 최적, 시가 17억원

연락처: 011-9646-1990

# 사찰안내

- 종교부지 및 답: 1026평
- 가액: 10억 6천만원
- 위치: 오산 ↔ 안성 국도 (4차선 확장공사중) 변 1km 접한 곳으로 오산 I.C 오산시청 10분거리

동탄신도시 15분 거리에 위치한 발전성 최고의 수행 환경을 갖춘 사찰임.

법당, 주방용 집기 등 일체 양도함.

010-6809-9294